

農家所得 增大 方案

—畜産을 中心으로 한—

畜産學會 姜 晁 熙
學農博士

1. 현지 지도 소감

필자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산하 새마을 봉사단의 지도위원의 일원으로 금번 5월 25일 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충남 지방의 대전, 대덕, 공주, 아산의 수개 부락을 시찰하여 국가적 큰 사업인 새마을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아울러 오래간만에 농촌 풍경에 접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25일 아침 김 윤기 회장 직접 인솔아래 일행은 2대의 승용차에 분승 일로 대전으로 향하여 그 곳에서 간단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도청에서 관계관의 현황을 청취한 다음 곧 바로 부락의 실제 답사에 나섰다.

필자는 전공분야가 축산이므로 시찰한 마을의 실체를 토대로 축산이 농촌에서 어떠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 거대한 새마을 운동 추진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 의의를 갖고 또한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느냐는 명제(命題)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첫날에 들른 대전시 산성동 뒷사정부락은 대전시에 편입되어 있기는 하나 산간벽지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교통이 불편한 조그마한 마을로서 원래 65호 정도의 가구수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농(離農)으로 39호로 줄어든 마을이다. 그러나 남은 부락민들은 1971년 7월 부락개발 결의에 따라 농로 5.272M를 개설한 것을 필두로 여러가지 새마을 사업을 착착 진행하여 그 실효를 거둬에 따라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의 복귀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안내의 수고를 맡아 주었던 당도 내무국장은 「하면 된다는 신념에서 우러난 자발적인 힘으로 저 어려운 농로를 개설한 정신」을 칭찬한다. 그간의 경과를 자세히는 모르되 이 부락민들은 놀라운 사업을 성취하였고 무엇인가 희망과 기쁨에 젖어 있는 듯이 느껴진 것은 믿음직하고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락의 영농사태를 보면 농가호수 39호에 경지 면적 28.3ha로서 호당 평균 약 0.72ha이며, 가축수는 소 19두, 돼지 3두, 닭 110 수로서 가축 단위로는 21두이다. 따라서 1ha당 약 0.8 두로서 기준 1ha 당 1두라고 한다면 약간 부족한 셈이다.

이 부락의 소득증대사업계획으로서서는 목야지 10ha을 이용하여 한우 30두와 산양 30두를 입식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느타리

버섯, 밤나무등으로 73~75년에는 호당 120,000원 76년 부터는 148,000원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대덕군 진잠면 학하리 1구에 들렀는데 한마디로 딸기의 마을이다. 서울에서 보는 딸기가 전부 이 마을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다.

농가호수 120호에 경지면적 호당 0.8ha 인데 1972년의 실적은 총 경지면적 102ha의 약 88%인 90ha에서 식량작물을 12%인 12ha에서 딸기, 포도를 재배하여 10a 당 각각 약 24,000원과 80,000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73년에는 백작면적을 5ha감소시키고 수익성이 높은 딸기 재배에 전용할 계획이다.

이 부락에는 농가에 가축이 없이 딸기나 포도 같은 원예작물로 특징 지워지는 영농형태의 마을이다. 그런가 하면 구입사료에 의존하는 30두 규모의 양돈장(군 지정 양돈장)이 있는것도 이색적이다.

이 날은 피로한 몸을 유성온천에서 풀었으면 하였으나 편의상 동학사(東鶴寺)의 동학산장에서 맑은 공기와 계룡산의 경기를 만끽하면서 하룻밤을 새운다. 음식도 입맛에 맞고, 새벽 산책과 절간 흥룡물로 세수하는 맛은 또한 선경이 아닌가, 26일 일찌기 조반을 마치고 계룡산의 갑사(甲寺) 쪽의 논산군 상월면 지경리에 이른다. 국도에서 마을까지의 진입로(進入路) 공사가 한창인 이 부락은 새마을 사업의 주택개조공사도 한창이어서 저마다 부록크쌍기, 간단한 목수일은 다 할줄 알아 온 마을이 바쁜 일손에 기쁨과 희망이 넘쳐 흐르는 것 같다.

이 부락의 중심인물격인 양(楊)모씨 집에서 새로 설치한 전자, 메탄가스 발생 장치를 살펴보고 진짜 오골계(烏骨鷄)를 구경한다.

필자는 논산에 오골계를 다수 기르는 독지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수년전부터 한번 조사하러 왔으면 하였으나 성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차라 바로 그 집은 아니지만 진짜 한쌍의 오골계를 발견하고 소중히 카메라에 담는다.

오골계는 우모(羽毛)와 피부는 물론 뺨, 부리 발톱 심지어는 뼈에 이르기까지 진홍색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지계(地鷄)이다. 아직 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조사가 없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조사 연구와 보존 나아가서는 특산물로서의 번식 육종이 필요한 귀중한 것이다.

이 마을은 눈 앞에 전개하는 문전옥답에 힘입어서 인지 축산은 별로 기록할만한 것이 없다.

주마간산(走馬看山)이라더니 먼지를 날리면서 달리는 차창으로 내다보는 낯선 충청도의 산천은 깨끗하고 조용하기만 하다. 금강상류(錦江上流)는 유난히도 맑고 우아하다.

오정이 넘어서 공주(公州)에 도착, 간단히 점심을 한다. 이 고장은 필자가 수원농사시험장에 재직시 목포에서 자동차길로 잠깐 거쳐 간 이래 25~6년만에 두번째 길인데 크게 변함없는 온화한 옛 모습 그대로인듯 하다.

시내에서 얼마되지 않은 곳에 무령왕릉(武寧王陵)이 있다. 아무리 관광여행이 아닐지라도 그 관광을 빼놓을 수야 있겠는가? 일행은 이 능의 내부구조를 보고 놀라지 않는 분이 없다. 필자도 비록 이 방면에 아는 것은 없으나 그 구조의 정교(精巧)함에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1,500년 전이라는 까마득한 옛날에 갖고 있던 그 기술이 발전을 계속하고 서민화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면서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우수한 민족의 후예인 우리들에게 과학과 기술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면 세계 어느 민족 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이어 곧 바로 공주군 우성면 목천리 2구 부락에 도착한다. 이 부락은 농가호수 50호에 경지면적 43ha 호당평균 0.86ha인데 주로 식량작물을 재배하고 부업으로서는 양잠을 하고 장래에는 양묘, 양어사업을 첨가하여 72년의 호당소득 431,000원에서 73년에는 518,000원으로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축산은 특기할 만한 것이 없다. 이 마을 지도자의 전기를 풀어달라는 애타는 호소를 버리에 남기면서 온양으로 달린다. 군계에서 아산군수의 영접과 안내를 받고, 또 백차의 에스코트까지 받은 것은 인상적이다. 온양읍에서 옛 동현(東軒) 자리인 온주아문(溫州衙門)을 왼편에 보면서 좌부리 부락에 이른다.

이 부락은 퇴락한 큰 기와집들이 마을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앞에 내를 끼고 뒤에 수려한 산을 등지고 있는 고풍창연한 마을이다. 그러나 새마을 사업도 다른 부락보다 뒤지지 않고 오히려 합리적인 것 같다. 가구수는 148호중 농가호수 115호에 경지면적 103ha, 호당 0.64ha의 영세규모로서 전국평균보다 훨씬 적다. 그런데 가축수를 보면 소 52두, 돼지 120두, 닭 2,500수 토끼 150수로서 가축단위로 환산하면 103두로서 유축농업상 적격규모의 마을이다. 72년의 농가호당 소득 약 35만원중 축산소득은 약 6%에 불과하나 73년의 계획에 따르면 호당소득을 30% 증가한 약 45만원으로 계획하고 이 가운데 축산수입을 약 15%로 잡고 있는 것이다.

이상 몇개 현지답사한 부락의 현황을 축산의 입장으로 결론지어 보면,

- ① 각 부락의 공동으로 농업의 경영형태는 식량작물의 소득이 주종이나 과거와 같이 경종농업만으로는 근본적인 소득증가를 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 ② 소득증대사업으로서 축산에 역점을 둔 부락, (대전시 웅서정부락, 온양읍 좌부리의 경우)
- ③ 딸기 포도 같은 원예작물에 역점을 둔 부락(대덕군 진잠면

학하리 1구의 경우)

- ④ 양묘, 양잠 또는 양어사업에 역점을 둔 부락(공주군 우성면 목천리 2구의 경우)등의 유형으로 구별된다.
- ⑤ 모든 사업은 단독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진실한 진전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농업 또는 축산은 분야별, 가축별로 분립(分立)하며 유기적인 결합성이 적다.
- ⑥ 따라서 농업경영 조직내의 각 분야가 절대 소득액의 증가에만 힘쓰고 상호의 비율의 소강에는 비교적 무관심하다.
- ⑦ 경지면적과 가축수를 대비하면 적정두수를 보유하고 있는 부락에서도 축산수입의 비율은 극히 낮다.
그 이유는 환금가축으로서의 사육이 발전되지 못함에도 있으나 구비등 부산물의 가치와 효용을 환가하지 않은데 있다.
- ⑧ 가축도입에 있어서 구입사료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다.
- ⑨ 축사등의 개량에 있어서 가축위생 또는 배설물의 합리적 이용등 견지에서 미비한 점이 많음.

2. 자매부락의 지도방안

(1) 현 황

자매부락인 좌부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 ① 농가호수 115호, 경지면적 103ha, 호당경지면적 0.64ha로서 전국 평균이하의 영세영농규모의 부락임(표1)
- ② 가축 사육 규모는 호당 0.9두 경지면적 1ha 당 1두로서 유축농업의 적정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나 소득면에서는 총소득의 6% (1972)에 불과하여 부업적 존재에 불과하다(표2)
- ③ 농가의 규모와 의욕에 따라서 낙농과 양돈 또는 경업으로 발전하되 양돈의 경우 30두로 산업화한다.
- ④ 이 때의 경지면적 1ha의 경작지는 30a 정도를 사료작물로 할애하여 자급사료를 생산한다.

(2) 지도목표

- ① 본 부락은 전국 평균이하의 영세농가의 집단부락이므로

표 1 영 농 규 모

	농가호수	경지면적	호당면적	가축수	가축단위	호당	1ha당
대전시 산성동 윗사정 부락	39호	28.3	ha	소19 돼지3 닭110	21두	0.76	0.8
대덕군 진잠면 학하리 1구	120 (140)	102	0.8				
공주군 우성면 목천리 2구	50 (51)	43	0.86				
아산군 온양읍 좌부리	115 (148)	103	0.64	소52 돼지 120 닭 2,500 토끼 150	103	0.88	1.0
	은총 호수						

표 2 농 가 소 득 구 조

	사 업 별	1972년		73년 이후	
		액 수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대전시 산성동 윗 사정부락	통 일 비	72년분 미기재 73년분은 이익금		700,000	12.0%
	한 우		1,500,000	27%	
	산 양		240,000	4	
	느타리버섯		2,067,000	37	
	밤 나 무		1,095,000	20	
	총 계			5,602,500	
	호 당			144,000	
대덕군 진잠면 학하리 1구	작 물	22,320	70%	23,076	59%
	딸 기	3,230	10	7,879	20
	포 도	6,360	20	7,920	21
	총 계	31,910		38,875	
	호 당	266,000		324,000	
공주군 우성면 목천리 2구	식량작물	21,424	97%	23,222	87%
	양 잡	548	3	640	2
	양 묘	—		1,160	5
	양 어	—		1,400	6
	총 액	21,972		26,422	
	호 당	439,000		528,000	
아산군 온양읍 좌부리	식량작물	30,502	75%	33,360	64
	원예작물	4,100	10	6,600	12
	축 산	2,416	6	7,440	15
	유 실 수	890	2	1,180	2
	부 업	2,900	7	3,600	7
	총 계	39,918		52,150	
	호 당	346		453	

농업소득중 축산소득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축산농업부락으로 전환함을 궁극 목표로 할것.

그러기 위하여 양돈과 낙농이 상호간 또는 경종농업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되도록 타부문의 절대소득의 감소없이 축산소득의 상대적 비율을 높여가도록 한다.

② 협업축산의 발전

양돈등 협업경영이 비교적 쉬운것 부터 시작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할것.

③ 공동목야지 또는 사료포의 경작으로 되도록 많은 자급 사료를 생산하여 축산 경영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할것.

④ 축산 부산물의 합리적 처리와 이용을 위하여 축사의 개량 근대화를 이룩할것.

⑤ 축사와 주택의 분리

장래 사육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관리상 위생상 주택과 분리한다.

(3) 당면지도 과제

① 부락자체의 계획에 의하면 1973년 계획으로 전년 (1972년)에 비하여 배이상 축산수입의 비약적증가를 도모하여 상대적 소득비율을 6%에서 15%로 증가되고 6%에서 15%로 증가정책하고 있는 것은 이 마을이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축산에 대한 인식과 결심이 굳다는 것을 뜻한다.

② 농가의 종합소득 증대에 있어서 어느 한 분야의 소득이라도 이를 소홀히 할수없는 것이지만 특히 축산은 1980년대에 소득비율 50% 이상에 달할수 있는 장기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어도 상대적 비율을 연 5% 정도 증가시키도록 계획할것.

③ 축종은 우선 육성우 사육으로 소득을 증대하되 한우는 장래에는 농경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두수이외에는 유우로 전환할것.

④ 양돈은 영세농가에 가장 적합한 축종일뿐만 아니라 협업이 용이하고 낙농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이며 메탄가스 이용에 절대 필요하므로 능력에 따라 1~3 두 또는 그 이상 사육하도록 할것.

⑤ 유산양을 도입하여 자가용유(自家用乳)를 해결하고 식량 절약과 보건향상에 공헌토록 할것.

⑥ 농산 부산물의 이용과 공지 유향지를 이용한 사료 생산에 노력하도록 할것.

⑦ 가계부 영농수지계산등을 세밀히 기록하도록 하여 영농과 생활의 과학화를 기할것.

결 과 보 고 서

지도위원장 : 강 면 희

일시	장 소	대 상	제 목	지 도 내 용	
5.25	대전시 산성동 윗사정부락	지도자	산양사육	자가용의 이용을 도모할것	
		대덕군 진잠면 학하리 1구	지도자	축 산	축산수입을 농가 소득에 계상하고 작물수입 자체의 증산에 도움이 되도록 할것
		"	양돈가	양 돈	돈사 구조 개선, 자급사료생산
5.26	논 상월면 지 경리	농 가	양 돈	糞尿처리시설 구별하고 오줌통을 만드시설 치할것	
	아산군 온양읍 좌부리	지도자	축 산	소득계산을 부분별로 더욱명확히 할것	
		"	양 돈	양돈 사료를 판매사료에만 의존하려는 계획을 시정할것.	